

基調講演

李退溪의 哲學的修養學과 日本儒學

東京大 名譽教授 阿部 吉雄

I.

日本の文化는 古代로 遡及하던 遡及할수록 韓半島의 文化를 떠나서 論할 수 없다. 그것은 高松塚古墳이나 武寧王陵의 發掘에 의해서, 또 韓國古美術 五千年展의 展覽에 의해서 더욱더 明瞭하게 認識되어 가고있는 터이다. 그런데 日本近世의 儒敎文化成立도 韓半島의 儒敎를 떠나서는 역시 論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나는 十餘年前에 『日本朱子學과 朝鮮』이라는 一書を 著述하여 이 事實을 學術적으로 論證하였었다.

그리고 昨年에는 德川時代に 出版된 李退溪의 著作十一種 全四十六卷을 모아 『日本刻版 李退溪全集』 上下二冊을 出版하여 李退溪가 德川時代の 初期부터 日本의 學者들에게 어떻게 尊敬을 받았던가 하는 것을 如實히 世上에 提示했던 것이다. 德川時代に 있어서는 中國이나 朝鮮에서 圖書가 數 많이 出版되었었지만 아마도 學者個人으로서의 著書로서는 朱子 다음으로 李退溪의 著書가 가장 많이 出版된 것이 아닌가하고 推測하고 있다.

그래서 李退溪에 관해서 하고싶은 말은 泰山같으나 오늘은 日本學者가 李退溪의 어떤점에 마음을 끌게되었던가, 그리고 그 끌린 마음이 日本의 思想史上 어떠한 意味를 지니며 또 現代的으로 어떤 意味를 갖는가라는 諸問題를 中心으로하여 그 一端을 말하고자 한다.

II.

日本近世儒學의 開祖인 藤原惺窩는 林羅山과 더불어 李退溪著 『天命圖說』을 읽고 理氣哲學을 깊이 理解하는데 있어서 많은 影響을 받

있었다. 즉 日本의 中世까지의 神佛本位의 未來的인 生活을 希求하는 佛敎的 世界觀을 一轉시켜 現世의 秩序를 主로하는 보다 合理的인 世界觀을 樹立하는데 있어서 적지않은 學恩을 받았다고 해도 無妨하다.

특히 藤原惺窩는 文祿·慶長亂의 捕虜 姜沆을 스승으로 또한 벗으로 삼아 最初로 僧籍에서 還俗한 儒者로서 獨立하였고, 또 李退溪가 校訂한 朱子의 『延平答問』을 熱讀하여 心眼을 열었으며 이것이 朱子學을 秘傳해주는 貴重한 책이라고 看破하였다. 그리하여 門人인 林羅山에게 傳授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日本의 近世儒學이 勃興한 것도 또 儒者라는 職業이 日本에서 처음으로 생긴것도 朝鮮儒學의 影響에 입은 바가 매우 큰 것이었다.

다음으로 나타난 山崎闇齋에 이르러서는 平和通商에 의해서 入手한 李退溪의 『自省錄』을 읽고 感憤興起하여 學問敎育에 깊이 自得하게 된다. 그때까지 林羅山學派의 官學的 學風과는 전연다른 道學을 唱導하기에 이른다. 이 山崎闇齋의 學問의 根柢는 李退溪의 學問에 의해서 形成定立되었다는 假說을 나는 세우고 있다. 李退溪의 全 著述을 讀破하고 그 學問과 人格의 全體에 관해서 높이 評價한 사람은 다름아닌 山崎闇齋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門流들도 모두 李退溪를 尊崇했고 그가운데서도 高弟인 佐藤直方의 學派는 특히 李退溪에 傾倒하였는데 그 遺風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濫存繼承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闇齋學派와는 별도로 熊本에서 大塚退野의 學派가 出現하는데 아마도 闇齋學派 以上으로 李退溪에 傾倒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 門下에 橫井小楠 元田永孚 등 諸學者가 나타나기에 이르러서 明治의 敎育方針이 確立되는데까지 관련을 가지고 왔다. 李退溪의 學問은 山崎闇齋, 佐藤直方, 大塚退野 등의 思想에 取入되어 그들의 頭腦를 通해서 日本의 思想界에 상당히 큰 影響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III.

그렇다면 日本의 儒學者는 李退溪의 어떠한 點에 가장 共鳴했던가.

그 첫째는 李退溪가 孔子나 朱子가 學問教育의 目標로 한 것을 的確하게 把握하여 人格의 陶冶, 人間形成을 第一義로 하는 道學을 새로이 定立한데 있고, 둘째는 그 方法으로서의 敬, 즉 공경하고 삼가하는 修身의 가르침을 가장 重要視하고 敬에 의한 修養을 親切하게 說明한 것이며, 셋째는 안으로 高遠한 哲學을 秘藏하면서 日常의 卑近한 生活의 場에 即하여 着實히 理를 探求하고 實行을 敦篤히하여 知와 行을 鍛練하지 않으면 안됨을 力說한 點등에 있다고 생각한다. 山崎闇齋는 三十三歲時 退溪의 「自省錄」을 읽고 感憤興起한 것도 바로 이 點에 있었고 朱子の 『白鹿洞學規』를 『大學』以來的 重要的 글이라고 밝혔으며 또 朱子の 李退溪 「敬齋箴」을 表彰하여 함께 集註를 말들어 出版한 것도 李溪溪의 說에 誘發되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朱子の 歿後, 朱子の 學問은 그가 가장 싫어했던 科擧 利祿의 學으로 轉落되고 더욱더 煩鎖雜駁한 것으로 變하게 되어 朱子가 立敎한 참된 精神이나 때로는 朱子哲學의 根本義까지 저버리게 될 뻔 하곤했다. 이러한 때 李退溪가 東方에서 崛起하여 朱子の 참 精神을 바르게 繼承하고 哲學을 再興했다고 하여 日本의 山崎學派에서나 大塚學派에서나 李退溪의 地位를 더 높이 評價했던 것이었다.

다시말해서 山崎闇齋가 李退溪를 「朱子の 高弟에 다를바 없다」 「朝鮮의 一人」이라고 評價한 以來, 佐藤直方は 「그 學識이 있는 곳에 元・明諸儒들은 類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또 「朝鮮의 李退溪 後, 이 길을 負荷할려고 뜻하는者 나는 아직 그 이름을 듣지 못했노라」고까지 評價했으며, 佐藤學派의 稻葉默齋는 「小成의 朱子」 「朱子の 道流」 「朱子以來的 一人」이라고까지 가장 높이 評價했다. 뿐만아니라 橫井小楠은 元・明以來 「古今絶無의 眞儒」라했고, 楠本碩水도 「朱子以來的 一人」이라고 그 位置를 確定시키고 있다.

李退溪도 山崎闇齋도 이 길, 즉 五倫五常의 길을 참되게 알고 實踐하는 道學이야말로 바른 學問이며 헛되이 知識에만 偏重하는 當時의 學問을 俗學이라하여 嚴하게 區別하였다. 말할나위없이 儒學의 目的은 修己治人에 있으며, 朱子는 그 目標를 達成하는 方法으로서 居敬과 窮理라는 二本의 기둥을 세웠다. 그리하여 居敬과 窮理는 마치 수레

의 兩輪과 같이 어느 한쪽을 廢해서는 안된다고 力說하였다.

居敬이라는 것은 人間이 本來갖는 純粹한 本性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實踐的 努力이며 그 첫걸음은 嚴肅히 外貌를 端正히 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身心을 가다듬어 精神을 事物에 集注하여 잠잘때는 잠자는 거기에, 讀書할때는 讀書하는 거기에, 일할때는 일하는 거기에 全精神을 傾注한다. 이렇게 한다면 自然히 眞實된 自己가 顯現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하다해도 緊張을 持續하라는 것이 아니라 敬을 忘却하여 敬하지 아니함이 없는 努力이 說明되어 있음은 말할나위도 없다. 그런데 恒常 起居動作을 삼가고 精神을 集中하는 것이 居敬이지만 李退溪는 특히 日常生活에 있어서 外貌를 整齊嚴肅히 하는것이 本源의 마음을 修養하는 秘訣이라고 強調하고 居敬의 努力에 관해 懇切히 門人을 가까이하여 曉諭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敬이야말로 學問修養의 出發點이며 大根本이라고 해서 오히려 窮理보다 居敬을 重視했다. 元·明以來 學問이라든가 教育이라고 한다면 흔히 書冊을 읽고 知識을 높이는 것만을 意味하기 쉬웠으나 李退溪에 있어서는 敬이야말로 가장 重要的 것이며 知·行을 根本으로 해야 함을 力說하였다.

물론 知識을 높이는 것을 輕視한 것이 아니라, 居敬과 함께 窮理를 重視했었다. 다만 그 窮理라 함은 抽象的 觀念의으로 空理를 探求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事物에 即하여 그 道理法則을 嚴密히 探究하는 것을 意味했다. 그런 意味로 科學的 精神에 가깝기는 하지만 오직 李退溪의 경우는 道德의 根源으로서의 天理를 窮求하는 것에 한층 重點이 두어져 있었다. 그리고 李退溪는 그 理를 窮求하는 경우도 日常生活의 平實明白한데서부터 着手해야 할 것을 敎示, 말하자면 全生活를 통하여 人間의 本來性과 그 宇宙的인 關連을 洞察하고 自得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讀書窮理라 해도 聖賢의 古典을 客觀的으로 傍觀者的으로 研究하는 것이 아니며 自己 마음의 切實한 問題로서 古人의 마음을 미루어 體驗하고 自己를 反省하고 自己의 人格을 純粹化하고 向上시킬려고 한다. 本來의 眞實한 마음을 看取하는 眼目을 길러 自己를 天理 그대로의 人間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理를 窮求한다.

「體察體味」「切己近思」가 특히 道學派에서 強調되는 것은 그런 意味이다.

Ⅳ.

李退溪의 『自省錄』에 「涵養體察은 吾家の 宗旨」라고 보이는데 要컨데 李退溪의 道學은 道를 참되게 아는 것과 그 實踐을 目標로 하니만큼 人間의 本來性, 眞實한 마음을 探求하는 人間探求의 學이며, 동시에 이것을 自己一身에 實現하는 修養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李退溪는 즐겨 「道の 眞知實踐」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道란 日常에 있어서의 五倫의 道, 다섯의 人間關係의 道德인 것이다. 그 道德은 人間의 本性에 根據하는 것이다. 그 本性을 一言蔽之하면 仁이며 人間은 本來的으로 이 仁을 固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朱子는 仁을 定義하여 「心の 德, 愛의 理」라고 했으나 山崎闇齋의 高弟 淺見綱齋는 이것을 日本語로 翻譯하여 「마음가짐, 사랑(愛)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生命」이라하고 있다. 人間에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있다. 그것이 眞實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天地가 生하고 또 生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生生潑刺한 「天地의 心」, 말하자면 宇宙의 旺盛한 生命力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說은 朱子의 仁說에 根據하는 것이며, 李退溪가 이미 「聖學十圖」에 揭示한 것이었다. 현대 人間은 누구나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따스한 本性을 所有하고 있다. 그것이 언제 다 顯現될 수 있게 끊임없이 修養을 쌓아 自己의 心魂과 氣質을 徹底하게 變化시키고 純化시켜 人格을 陶冶하여서 生命의 一大歡喜를 가질려고 한다. 哲學的 實踐倫理이며 修養學이다. 稻葉默齋는 道學을 결국 「氣質變化를 指向하는 修養學」이라고 간단히 指摘하고 있으나 李退溪의 道學은 人間의 純粹化를 指向하는 哲學的 實踐倫理 혹은 哲學的 修養學이라고 그 性格을 規定하는 편이 더 理解하기 쉽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道學의 學風은 當時의 一般의인 學風과 꼭 相違한데가 있었고 現代의 西歐的인 學風과도 그 性格에 있어서 相違한데가

있다. 現代的 學問教育에 關係해서 말하면 그것은 事物을 될 수 있는데로 客觀的으로 傍觀者的으로 研究하는 것을 第一義로 하는데 있으며 적어도 學問의 世界에서는 人格의 陶冶를 第一義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새삼 조용히 생각해 보면 人格의 陶冶, 品性의 向上을 主目標로 하는 觀點이야말로 孔子나 朱子의 教育의 觀點을 바르게 繼承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또한 世界가 東洋에 求하고 있는 教育精神도 바로 이 點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이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問題라고 생각한다.

李退溪는 居敬窮理라는 修養法이나 教育法 또는 靜坐法 등에 關係해서 具體的으로 懇切하게 提示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詳細히 研究하여 世界에 紹介하는 일은 壁에 부딪쳐 있는 世界의 文明에 寄與하게 되는 所以가 있다고 나는 믿는 바이다. 지금까지는 日本에서도 西歐의 人 學問觀, 教育觀에 支配되어 道學의 生動하는 學問으로서의 性格이 낮게 評價되어 研究가 뒤져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은 日·韓·華의 뜻있는 學者들이 서로 손을 잡고 더욱 具體的으로 詳細하게 研究를 進行시켜야 한다는 必要性을 느낀다.

V.

그러한데 徹底하게 根本을 培養한다는 李退溪의 修養學은 日本의 山崎學派, 大塚學派로부터 특히 尊敬받았고 明治時代에 이르러 元田永孚의 思想을 통해 明治教育의 方針을 確立하는데까지 間接的이지만 關聯을 가졌었다. 元田永孚는 明治天皇 二十歲때부터 侍講으로서 天皇의 絶대한 信任을 받아 西歐化主義가 全盛했던 明治初년에 日本의 教育方針을 是正하는데 크게 貢獻하였다. 그 田元이 전에 「程朱學은 朝鮮의 李退溪에 傳해졌고, (大塚)溪野先生은 退溪所撰인 朱書節要를 읽고 超然히 얻은 바 있었다. 지금 나는 退溪의 學을 傳하여 이것을 今上(明治天皇)에게 받들어 드린다」고 했다고 한다.

明治十二年 明治天皇은 元田에게 命하여 『教學大旨』를 筆錄시켜 「教學의 要는, 仁義忠孝를 탐히고 그 다음에 知識 才藝를 다하는 것이 傳

統的인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또 「道德의 學은 孔子를 主로하여 사람들이 誠實한 品行을 尊重하고 그렇게 한 후에 各科의 學을 勵獎한다면 道德·才藝의 本末이 全備되니 우리나라의 獨立精神에 있어서 宇內에서 부끄러울 일이 없을 것』이라고 明示하여 教育은 어디까지나 道德·修身을 基本으로 삼아야함이 說明되어 있었다. 이것이 뒤에 教育刺語의 淵源으로 된 것이며 明治初年の 西歐風의 功利主義, 實利主義의인 教育方針을 一變시키는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또 明治天皇은 明治十九年 東京大學에 行幸하셨을 때에도 西歐의 學術을 講究하기만하고 「修身을 專念」하는 國漢의 古典을 講究하지 않는다면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政事治世의 道」를 알고 「國家棟樑이 될」人材를 養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어 元田에게 『聖諭記』를 記述시켰다. 國漢의 古典을 修身爲主의 學問이라고 規定하고 西歐의 學術과 區別한데 注意해야 하며 거기에서는 學問의 目標을 어디까지나 道의 眞知와 그 實踐에 두는 道學派의 主張과 一脈의 關連을 求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데 以上과같은 明治天皇 元田永孚의 提言은 西歐化主義가 全盛했던 明治初年에는 劃期的인 意味가 있었으나 오늘날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當然中の 當然한 意見으로서 格別히 珍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돌이켜 李退溪의 學說에 관해 생각해 보면 李退溪는 宜當 그러해야 하는 것을 宜當 그러하다고 말했다를 뿐 格別히 珍稀한 說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稻葉默齋는 李退溪를 明代의 『讀書錄』의 著者 薛文清과 比較하면서 李退溪에는 두드러지게 사람들의 耳目을 놀라게 하는 言說도 없고 平實明白한 것을 그대로 平實明白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自然히 妙味가 있고 親切한데가 있다. 이 點이 薛文清보다 훌륭하다고 指摘하고 있는데 매우 興味있는 指摘이라고 생각한다. 宜當 그러해야 할 일을 宜當 그러하게 말하고서도 사람들을 끄는 것은 참으로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다. 古人은 「平素의 마음, 이것을 道」라하고, 또 「庸言을 말하고 庸行을 行한다」고도 했는데 李退溪는 그러한 분이였다.

默齋는 李退溪는 一平生 聖人을 모범으로 修養했고 마지막 날까지 멈추지 않았다. 말하자면 길을 가는데 넘어질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

지 않는 사람과 같고 孔門의 顏淵과도 같은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業垂後世한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孔子를 배울려면 朱子를 배우고 朱子를 배울려면 李退溪를 案内者로 하라. 그러 함으로써 眞理를 把握하는 발판을 굳힐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까닭에 그는 그의 父 稻葉迂齋가 開說한 朱子書節要課會라고 하는 讀書會兼修養會를 持續시키는데 盡力했었다. 이 課會의 規約이 지금에 傳해오지만 이 會는 每日早朝에 起床하여 李退溪의 『朱子書節要』를 한張 혹은 한節을 읽으며 특히 初一日과 十五日에는 禮服을 갖추어 節要의 序文과 跋文을 玩味하였고, 月に 一回는 定日에 會合하여 疑問點을 論議하는가 하면 잘못을 諫하는 것이 서로의 約束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會合이 千葉縣의 成東, 東金이란 地區에 昭和의 十數年째까지 繼續되어 行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冬至日에는 「李退溪以後 아직 이 道를 負荷하려고 하는者 든지 못했노라」고 한 一句가 있는 佐藤直方의 冬至文을 읽는 會合이 조출하기는 하지만 現在 그래도 繼續되어지고 있는 이것은 얼마나 李退溪의 마음인 佐藤直方, 稻葉默齋를 통하여 日本에 脈膊쳐 왔는가를 알게 해주는 證據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李退溪의 哲學的 修養學은 어디까지나 根本의 培養을 指標로 하고 孔子나 朱子의 마음과 行動을 배워서 自己를 反省修養하는 實踐의 學問이다. 朱子의 여러 學說의 純理論만을 배운다는 것만을 가지고 學者로 되는 것은 아니다. 「純理論에 精神을 팔면 道는 一生 보이지 않는다」고 山崎闇齋는 喝破했고 李退溪의 『朱子行狀注』나 『朱子書節要』를 통해서 朱子의 心과 行을 具體的으로 배워야함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人間의 尊嚴性, 本來性과 그 根柢에 있는 天地의 生生潑刺한 生命력을 篤信하고 人間을 純化하여 어떠한 困難이나 誘惑에도 敗하지 않는 確乎한 道義心을 確立할 것을 強調하였었다. 그리하여 闇齋는 그러한 基盤에 立脚하여 더욱 朱子의 正名主義를 發展시켜 日本의 名分을 定立할 것을 主張하였다. 특히 日本의 國統에 맞추어 尊王論을 唱導했다. 闇齋學派의 主張이 脈脈히 後世에 傳해져 明治維新의 思想의 一大源流로 된 것은 徹底하게 根本을 培養하는 道學을 繼承하였고 繼承만이 아니라 道學을 日本化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Ⅵ.

國家의 再建은 道德의 再建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道가 興하면 이 나라가 興하며, 이 道가 衰하면 이 나라도 衰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道德의 再建도 이 道의 振興도 결국 各自가 특히 指導者가 修養을 勵行하여서 自己自身에 道德을 再建하여 이 道를 振興하는 以外 他에 適當한 方法은 없으며, 이것이 歷史가 가르치는 教訓인 것이다.

退溪의 『言行通述』에 「根本을 培養하고 士林을 扶植하는 것을 當今の 急務로함」이라고 李退溪의 心中을 叙述하고 있는데 士林 즉 當時의 知識人, 에리트들의 相爭을 鎮定시키고 道義心을 確立하는 것을 先務로 했던 것이다. 國家의 再建을 위해서도 「아시아」의 平和를 위해서도 孔子의 道를 밝혀 根本의 培養을 力說한 李退溪의 뜻을 더 한층 精密하게 研究하고 修養法을 具體的으로 研究하여 이것을 世界에 宣明할 必要性을 나는 痛感하는 바이다.

時間關係로 說明이 不充分했으나 詳細한 것은 本人의 著書, 論文에서 補充해 주실 수 있다면 多幸으로 생각한다.

(宋兢婁 譯)